한계 육박 광주 제1하수처리장 증설 검토

광주시 25억 들여 하수도 정비 계획 용역 착수

2030년 목표… 집중호우 대응능력 높이고 수질보전

광주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수질보전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24일 시 전역(501.2㎢)를 대상으로 오는 2018년 7월까지 '광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25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2년간 진행된다. 기본계획은 2030년 시행 완료를 목표로 인구, 하수발생량, 사업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사실상 광주시 하수 정책의 기본 틀을 결정할 용역인 셈이다.

이 기본계획은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하수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하수도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 전체의 하수 수집과 이송, 처리 등 단계별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로, 하수처리구역 변경,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광주시는 우선 처리용량이 한계에 육박한 제1하수처리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일 처리용량이 60만t인 제1처리장은 현재 유입량이 58만~59만t에 달한다.

장마나 집중호우시에는 빗물과 섞인 하수가 처리용량을 훨씬 넘겨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처리용량 12만t인 송대 제2처리장도 현재 10만t 안팎의 하수가 유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불명수(不明水) 저감방안, 하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과 구분되는 분류식 등 하수도 시스템 안정화 방안,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한다.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등 종합대책도 준비한다.

광주 주요 지역 복개하천 수질개선 방안도 용역에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광주지역 하수도 시설의 침수대응 능력을 높이고 광주천, 영산강 등의 수질 개선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기관 공모

광주시는 광역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관리사업 기획, 치매연구, 치매상담센터·요양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하게 된다.

치매 관련 자원조사 및 연계시스템 마련, 중앙치매센터와 공동연구 수행 등의 역할도 한다.

치매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최대 3년이다.

희망 기관은 관련 제출서류를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에 방문해 내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는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2명이 앓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들 '사랑의 헌혈'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2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행사에 북구청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더민주 중앙당에 광주시·구의원 11명 조사 요청

시당, 시의회 원구성 관련 … 후유증 속 후반기 첫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갈등과 불협화음을 빚은 끝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쳤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예결위원장으로 이정현 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윤리·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간 임시회에서는 7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로 원 구성을 마쳤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1건 등 일반안건도 처리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는 의장 선거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열흘간 의장 공백 사태가 빚어졌으며 시 금고 조례, 정책자문관 조례 등은 일부 의원 간 갈등을 드러내면서 의결이 보류되기도 했다.

상임위별로 운영위는 교육위원회를 교육문화위원회로 바꾸고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는 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조례안 4건, 환경복지위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산업건설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교육문화위는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다음 임시회는 9월 1~7일 열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감사계획서 작성 승인,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지방의원 11명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더민주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시의원 3명, 구의원 8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와 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민주 후보를 돕도록 한 중앙당 지침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다.

더민주는 광주시의회, 동구와 광산구의회 의장을 국민의당에 내주고 서구와 북구의회 의장은 지켰다. 특히 광주시의회에서는 선거 당시 13대 8의 수적 우위에도 의장직을 내줬다. 더민주 소속 의원 1명은 선거 직후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고통 함께해 달라"

윤 시장, 인권포럼 참가자에 '소녀상 램프' 선물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해외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

윤 시장은 지난 22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조찬을 함께 한 뒤 작은 램프를 깜짝 선물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들로 구성된 '코끼리협동조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소녀상 램프'<사진>였다.

램프를 제작한 윤정원(18) 양도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죠티 상게라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 모텐 키아에움 스웨덴 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 베네디토 에듀아도 모잠비크 이냠바트시장, 추스니아 칼림 인도네시아 람풍시장, 무기얀토 인도네시아 국제NGO포럼 상임위원 등 5명이 선물을 받았다. 윤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달라"며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따뜻한 빛으로 치유한다는 의미의 램프"라고 설명했다.

모텐 키아에움 스웨덴 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은 "조그마한 램프에 그렇게 깊은 아픔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며 "돌아가서 선물에 대한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이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토론 결과를 '2016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에 담았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가 인권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의 중요한 의무 주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참여와 자치, 모든 구성원과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인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권도시의 비전임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2014년 포럼에서 확인한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국내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및 인권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기초지자체 간 연대를 위한 인권도시협의체 구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고 싶은 섬'에서 아름다운 선율 울려 퍼진다

한국예술학교 연희앙상블 비단

낭도·관매도·소안도 순회공연

전남의 섬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전남도는 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 공연단체 '연희앙상블 비단'이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낭도, 관매도, 소안도 등 전남의 '가고 싶은 섬' 사업지 3곳을 순회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전남도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협약을 맺어 다도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섬&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섬 따라, 길 따라'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예술 공연은 28일 여수 낭도를 시작으로 30일 진도 관매도, 8월 1일 완도 소안도에서 각각 진행된다.

'연희앙상블 비단'은 어촌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주민의 무병장수와 만선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오던 '풍어제'를 새롭게 각색한 수준 높은 전통예술 형식으로 창작됐다.

사물놀이, 탈놀이와 같은 전통 연희 창작 공연 '섬 따라, 길 따라'는 모두 네 마당으로 구성됐다.

첫째 마당 '돌돌이'는 예술단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섬 사람들을 축원하고 무사를 기원하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둘째 마당은 '무속사물놀이'로 여섯 가지 한국의 전통 가락을 모아 즐겁게 재구성한 공연이다.

셋째 마당 '삼도탈놀이'는 봉산, 양주, 고성 지역의 탈춤에 나오는 대표 인물들만 뽑아 새롭게 구성했다. 넷째 마당 '판놀음'은 출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흥겹게 즐기면서 '섬 따라, 길 따라' 공연을 마무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